



# 2015년 중국 양회 주요 논의 내용

이아름 연구원

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(兩會)가 2015년 3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(정협)<sup>1)</sup> 개막식을 시작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음.

-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(정협)와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<sup>2)</sup>로 구성되어 있으며,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산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.
- 양회는 정협의 경우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, 전인대의 경우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최 될 예정임.

■ 중국 정부는 3일 정협 업무보고를 통해 '반(反)부패'를 강조하는 동시에 '개혁'과 '혁신', '민주' 등도 강조함.

- 위정성 정협 주석은 정협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'반부패'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으며, 링지화, 쑤룽 전 부주석 등 총 14명의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하였고 향후 반부패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함.
- 위정성 주석은 정협 업무보고에서 '개혁'은 33차례, '혁신'은 12차례, '민주'는 49차례 언급함.
  - 중국 정부는 2015년 개혁안을 마련하고 중국 경제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(2016~2020년)을 발표함.
  - 혁신을 위하여 2015년 정협위원 소통 매커니즘 구성 및 관련 기관 마련, 정협위원 지방시찰시 현지 정협위원과의 좌담회 실시, 학습제도 개선 등을 실행할 계획임.
  - 또한 정협의 정책자문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, 민주적 토론, 협상 및 합의점 도출 등

1)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(정협)는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 기구이며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임. 정협은 중국공산당, 각 민주당파, 무당파 민주인사, 인민단체, 각 소수민족과 각 계층 대표, 대만동포, 홍콩과 마카오 동포, 귀국 화교대표 및 특별 초청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,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임.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함.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, 장지구, 직할시, 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며, 각 소수민족들은 모두 적당한 명액의 대표를 가짐.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수정하고 헌법 실시를 감독하며 형사, 민사, 국가기구의 기본 법률과 기타 기본 법률을 제정, 수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, 부주석을 선거하는 직권을 행사함.

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임.

■ 중국 정부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<sup>3)</sup>를 통해 2015년 경제성장률,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한 2015년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함.

- 리커창 중국 총리는 '뉴노멀(신창타이)' 시대를 맞아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.0%로 제시하였으며, 이는 2014년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7.5%보다 0.5%p 낮아진 것으로, 최근 11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임.
- 또한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3.0%로 제시하였으며, 이는 2014년 목표치인 3.5%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임.
  - 2014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2.0%를 하회하며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를 보였음.
- 수출입 무역 성장률의 경우 2014년 목표치인 7.5% 대비 1.5%p 하회한 6.0%로 설정되었음.
  - 2014년 중국의 무역성장률은 4.9%에 그쳤고, 3년 연속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.
- 중국 정부는 최소 1,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실업률도 4.5%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.
- 2015년 국방비는 2014년 대비 10.1% 증가한 약 8,869억 위안으로 책정되었으며, 증가폭은 2014년 12.2%보다 낮아진 수준임.

■ 전문가들에 따르면,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15일까지 열리는 전인대를 통해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운영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고 전망함.

-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위해 소득 재분배와 친환경 분야 및 공기업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중국 통화정책의 경우, 2015년 3월 1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부동산 불황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예금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함.
  - 예금 기준금리를 2.5%로, 금융회사의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를 5.35%로 각각 0.25%p 인하하였고,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적용 상한도 기준금리의 1.2배에서 1.3배로 확대함.
  - 2014년 11월에는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도 인하한 바 있음.

(FT, WSJ 등)

3) 2014년 업무 집행상황 및 2015년 업무계획.